

지역 소식통

기초수급 가정 방문상담

김제시(박준배 시장)는 기초생활보장 책정 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실태 변동사항과 기초수급자의 안전 및 복지 욕구 파악, 지역사회적응 등 종합적인 상담조사를 19개 읍면동 83명 사회복지공무원과 합동으로 5월15일까지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가정방문은 수급자 5,130세대 7,084명에 대해 2월~5월까지 실시하며 수급자의 거주여부, 수급자 가구구성원 변동사항,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파악,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근로능력판단, 가구 특이사항, 주거지 실태조사, 안전 및 복지욕구 등 전반적인 실태를 상담하여 공적자료를 보완하고, 맞춤형 서비스와 긴급복지 연계, 지역사회 복지지원 지원 등 수급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독려하기 위하여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담당은 사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업 직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담에 있어 전문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주문하고 추진상황 등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은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신청주요로 인한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과 “스스로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대상자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서 현혈 동참

김제경찰서(서장 임종명)는 19일 경찰서 주차장 내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우려로 현혈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김제경찰서 직원들이 현혈에 동참하였다.

이번 현혈은 김제경찰서 경찰관 등 약 20여명의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는데, 이날 현혈에 동참한 경무계 이신재 주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현혈이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접하고 사람의 일례이 현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박성일 완주군수, 코로나 19 예방·확산방지 지속적 대응
완주경제 지원책 추진·‘완주방문의 해’ 적극 준비 주문

박성일 완주군수는 19일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해 보건소와 재난파트에서 긴밀히 협조한 덕분에 전북에서 완주군이 선제적으로 가장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잘하다 한번 뚫리면 안 되는 만큼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주문했다.

박 군수는 이날 오전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총력전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군수는 또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각 부서별로 적극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바로바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을 위

해 선제적 대응을 해왔듯,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고, 강도 높고 빠른 속도로 즉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선제적 경제지원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주말 폭설로 이를 연기돼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박 군수는 특히 “2021년 완주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관광객들이 1회성 완주 방문에 그치지 않고 다시 찾는 등 지속 가능한 관광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와 관련, “2021년 완주방문의 해는 ‘완주가 어디에 있고,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완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완주를

잘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할 것”이라며 “간부들은 전문가들과 많이 만나 토론하고 여러 정보도 얻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완주 이미지를 업(up)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또 이날 “21대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전 직원들은 선거의 엄정준비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인 만큼 철저히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위를 주의하고 관련 단체도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군수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대응과 관련, “중앙부처 업무 방향에 맞춰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신사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사업을 중앙의 계획에 넣는 일”이라며 “전북도와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가동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스마트 도시’ 시동 건다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 공모

희망 기업 내달 13일까지 신청

완주군이 스마트도시 시동을 건다. 완주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발굴하고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은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주민 편의향상을 위해 도시 내 스마트솔루션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1개 사업자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응모(국비3억, 군비3억)예정이다.

공모에 제안 가능한 사업은 완주군에 도입되지 않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중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해 군 지역 전반 또는 특정구역 내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거나 편의증진 등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이나 주민 제안사항 등의 방법을 거쳐 실제거주민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립해야 한다. 군은 도입서비스기술, 지역, 참여할 민간기업을 3월 중에 선정해 4월 사업제안을 국토교통부에 응모할 예정이다.

김제 교월동 복지기동대, 따뜻한 봉사 벌여

김제시 교월동복지기동대(대장 최창인)는 19일 주거취약계층 3가정을 방문해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따뜻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눈이 매섭게 날려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던 날, 독거노인의 보일러와 가스 안전타이머가 고장났다는 전화를 받은 교월동 맞춤형복지팀은 대상자의 안전확인을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했

다. 교월동 맞춤형복지팀과 복지기동대는 현지를 확인하고 냉온수 액셀의 누수로 보일러실에 물이 고여 어르신 이 보일러를 작동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액셀과 밸브 등 부품을 교체해 추운 날씨에 보일러를 안심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고장났다는 가스안전타이머 2세대 중 1세대는 점검 후 수리하였고 1세대는 새것으로 설치하는 등 가스사



고에 많이 노출되어 응급대처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해 가스·화재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19일 작년에 이어 2019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모범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표창

완주군,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모범 기관 선정

완주군이 2019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면서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완주군은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 훈련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공장 대형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 상황을 가상 설정해 완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기업, 민간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한국훈련을 KCC 전주공장에서 실시했다. 당시 신속한 재난대응과 안전한 대피로 5일간의 훈련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훈

련장소 제공에 적극 협력한 KCC 전주공장의 योग인 안전과장이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훈련에 참여한 KCC 전주공장 직원들과 모든 유관기관·기업·단체들이 안전을 위해 실재상황처럼 훈련에 임해줘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한 재난대응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으뜸안전도시 완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훈련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재난대응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완주=이종복 기자

치매안심택시 타고! 공부하러 고고씹!

김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사랑에 쫓겨 1기 운영 호응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치매안심센터는 각종 치매 환자를 위한 사랑에(愛) 택시 1기를 이달 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 및 가족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치매 환자 택시는 치매 환자 주간 보호를 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하고 현실인식훈련, 인지자극 치료, 회상치료, 치매로봇 ‘실버’와 함께하는 기억력 교실 등 전문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정식 개소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되는 치매 환자 택시는 전보다 향상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치매 환자 가정과 센터 간 택시를 이용한 송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치매 환자 택시는 연중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12시, 오후 1~4시 두 개 반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상시 모집 중으로 관심 있는 치매 환자 및 가족은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로 전화 문의(☎ 540-2741)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